

간호학과 신입생의 심리자본이 학습만족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

정인숙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Convergence effects of psychological capital on learning satisfaction of nursing freshmen

In-Sook Ju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습만족에 대한 심리자본의 융합적 영향을 확인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수집된 164명의 자료를 SPSS 21로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의 상관계수 및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심리자본과 학습만족은 중간 이상의 수준이었고, 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희망' 점수가 가장 높았다. 심리자본과 학습만족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r=.665, p<.001$),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에서 학교성적($\beta=.311$), 학교생활만족도($\beta=.191$) 및 심리자본($\beta=.522$)이 학습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F=37.651, p=.004$). 학습만족에 대한 변수들의 설명력은 57.4%이었다.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습만족 향상 프로그램 개발 시 이들 영향요인을 반영함이 필요하지만, 일개 대학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주제어 : 간호학과, 신입생, 심리자본, 학습만족,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descriptive research is to get basic data for educational program after investigating convergent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on learning satisfaction of nursing freshmen. Using SPSS 21,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f the 164 collected data were carried out. The mean scores of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rning satisfaction were above the middle, and the 'hope' was the highest among subdomains of psychological capital.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rning satisfaction($r=.665, p<.001$). School performance($\beta=.311$), school life satisfaction($\beta=.191$) and psychological capital($\beta=.522$) were the significant factors of learning satisfaction i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F=37.651, p=.004$). The explanatory rate of variables on learning satisfaction was 57.4%. It is needed applying these results in developing learning satisfaction programs, but it isn't appropriate to generalize these results conducted on nursing freshmen in one university.

Key Words : Nursing, Freshmen, Psychological capital, Learning satisfaction,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In-Sook Jung(irisleejung@naver.com)

Received December 10, 2018

Revised January 4, 2019

Accepted February 20, 2019

Published February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들은 대학 입학 직후부터 전문간호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막중한 학업을 이수해야 하며, 대부분의 학과목이 상대평가로 이루어짐에 따른 성적에 대한 심한 압박이 동료 간 심한 경쟁관계를 형성시킨다. 이로 인한 높은 학업 스트레스는 학습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감소시킨다[1,2].

이러한 부정적 요인이 학습만족의 저하와 학과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최근 C 학원이 발표한 대학들의 정보공시사이트 자료 중 대학 알리미 분석을 통한 보고에 따르면, 2017년 서울지역 일부 상위권 대학 입학 후 중도 포기한 학생 수는 1,238명으로 최근 5년 이래 가장 많은 수였다. 그 중 S대학 단과대학을 대상으로 산출된 중도 이탈의 비율은 농업생명과학대가 3.0%, 간호대 2.5%, 자연과학대 2.4% 순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의 중도 포기 학생 수가 적지 않았다. 진로나 적성 또는 학과수준이 맞지 않아 타과로의 전과 등 이외의 정확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간호학과 입학 후 학과 부적응률을 감소시킨다면 간호학과 신입생의 중도탈락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1,3].

최근 성과중심의 교육과정에서,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을 통해 스스로에게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나 신념을 통해 판단하는 학습만족은 학업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대학 학습성과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고, 대학은 학습자의 학습만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일에 비중을 두고 있다[2,4,5]. 대학생들의 학습만족 향상을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과 인적 자원 등 교육시스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심리자본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리자본은 주도성, 사회성 및 수용성의 개념을 내포한다[1]. 다양한 기업들에서 조직구성원의 정신, 신체적 건강은 물론 인간관계를 개선하여 조직행동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교육계에서도 심리자본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통해 심리자본이 학습자들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1,6,7].

원래 긍정심리학에서 유래된 개념인 심리자본은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여 특정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자신감, 목표달성을 위한 의지와 방법을 설정하는 마음인 희망, 지속적이고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사안을 내면화하는 낙관성과, 문제 상황이나 실패에 직면 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복원력의 네 가지 개념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심리자본이 높다는 것은 대상자가 긍정적인 성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2,4,7,8]. 따라서 심리자본이 높은 학습자는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학습 수행과정에서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예측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목표달성을 위한 신념과 희망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어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리자본은 의미있는 학습을 촉진하여 학습만족에도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2].

심리자본 관련연구로서 심리자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심리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나, 심리자본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있고, 학습만족 관련연구로는,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의 학습만족 예측에 대해 조사한 연구나,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조사한 연구 등 다수의 연구들이 있지만 심리자본이 직접적으로 학습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2,8-11]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간호인으로 양성되어야 할 간호대학생들의 입학초기 교육중재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심리자본이 학습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서술적조사연구로 시행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학습만족과 심리자본의 정도를 조사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만족과 심리자본의 차이를 조사한다.
- 학습만족과 심리자본의 상관관계를 조사한다.
- 심리자본이 학습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심리자본이 학습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2018년 전남 소재 일개 대학교 간호학과 신입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크기 산정은 G*power 3.1.9.2로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로 하였을 때 적정 표본 수 160명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총 대상자 수는 164명으로 적정 대상자 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 심리자본(Psychological capital)

대상자의 심리자본은 유현숙(2004)이 개발하였고 박지윤(2017)이 사용한 Likert 5점 척도 17문항으로 자신감 5문항, 희망 5문항, 낙관성 3문항 및 복원력 4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도구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자본이 많음을 의미한다. 박지윤(20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심리자본 전체의 신뢰도는 .91이었다[2,8].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8이었고, 하위영역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자신감 .65, 희망 .72, 낙관성 .60, 복원력 .78 이었다.

· 학습만족(Learning satisfaction)

학습만족 측정도구는 최석봉(2012)이 사용한 도구를 박지윤(2017)이 수정 보완한 총 7문항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석봉(201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 박지윤(20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2,12],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8 이었다.

· 이상의 심리자본과 학습만족 문항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문항을 추가한 총 31문항의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총 31문항의 설문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전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설문지에 기입된 내용에 관한 비밀보장,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 이외의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히 보관하고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린 후 자발적인 연구참여 의사를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 진행 중이라도 연구

참여의 철회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구참여 중단이 가능함을 알려 주었다. 설문지의 배포와 수거는 연구보조원에 의해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20까지 시행되었는데, 일반적 특성 7문항을 포함한 학습만족과 심리자본 측정 설문지 168부로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한 164부를 연구에 포함시켰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으로 다음을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심리자본 및 학습만족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기술통계로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사후검정은 Tukey 방법을 시행하였다.
-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학습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구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 전체의 평균연령은 19.90±1.12세이었다. 성별은 여자가 69.5%, '적성'에 따른 입학이 50.0%, 대학생활에 '보통' 정도로 만족하는 경우가 72.0%, 주관적 학교성적이 '중간' 정도인 경우가 69.5%, 토론선호도가 '중간' 정도인 경우가 49.3%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성격유형에서도 내향적과 외향적의 '중간' 정도인 대상자가 51.8%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64)

Characteristics	Division	N (%)
Age(year)		19.90(1.12)*
Sex	Male	50(30.5)
	Female	114(69.5)
Motive of admission	to match Grade	11(6.7)
	to fit Aptitude	82(50.0)
	consider Job opportunity	71(43.3)
School life satisfaction	Low	9(5.5)
	Medium	118(72.0)
	High	37(22.5)
School grades	Low	35(21.3)

	Medium	114(69.6)
	High	15(9.1)
Prefer discussion	Low	67(40.9)
	Medium	81(49.3)
	High	16(9.8)
Personality type	Introverted	50(30.5)
	Middle	85(51.8)
	Extrovert	29(17.7)

* Mean(Standard Deviation)

3.2 대상자의 학습만족과 심리자본의 정도

대상자의 학습만족과 심리자본의 평균은 Table 2와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심리자본 평균점수와 전체 점수의 합은 각각 3.67±0.46과 62.40±7.74 점이었으며, 심리자본의 하위영역인 자신감, 희망, 낙관성 및 복원력의 평균은 각각 3.68±0.50, 3.90±0.52, 3.50±0.64 및 3.50±0.60점이었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학습만족 평균점수와 전체 평균점수는 각각 3.53±0.61과 24.68±4.31점이었었다.

Table 2. The scores of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rning satisfaction

Variables and items		M(SD)*	
Psychological capital	confidence	3.68(0.50)	18.41(2.52)
	hope	3.90(0.52)	19.50(2.60)
	optimism	3.50(0.64)	10.50(1.91)
	resilience	3.50(0.60)	13.99(2.41)
	Total	3.67(0.46)	62.40(7.74)
Learning satisfaction		3.53(0.61)	24.68(4.31)

* M(SD) : Mean(Standard Deviation)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자본과 학습만족의 차이

Table 3에서 보면 심리자본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입학동기별로는 ‘적성’에 따라 입학한 대상자의 평균이 ‘성적’이나 ‘취업선호’에 따른 입학의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p=0.001$). 또한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은 대상자의 심리자본이 ‘보통’ 정도로 만족하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0.001$), 주관적 학교성적이 ‘높은’ 대상자의 심리자본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2$). 토론선호도는 높거나 ‘보통’ 정도의 대상자가 ‘낮은’ 대상자보다, 성격유형에서는 외향적인 대상자가 ‘중간’정도인 대상자와 내성적인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p=0.001$).

학습만족에서는 성별과 입학동기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은 경우의 학습만족이

‘보통’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0.001$), 주관적 학교성적이 ‘높은’ 대상자의 학습만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토론선호도가 높거나 보통인 대상자가 ‘낮은’ 대상자보다 학습만족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성격유형에서는 외향적인 대상자의 학습만족이 내향적인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p=0.003$).

3.4 대상자의 심리자본과 학습만족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164)

	Learning satisfaction
Psychological capital	.665

$p<.001$

Table 4에서 보면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심리자본과 학습만족 간 중등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665$, $p<.001$).

3.5 학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자본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독립변수 중 질적변수인 입학동기, 주관적 학교성적, 토론선호도, 성격유형 및 대학생활만족도는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였다.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하는 Durbin-Watson 값은 1.687, 분산팽창지수(VIF)는 1.65~2.44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1단계에서는 주관적 학교성적($\beta=.396$), 대학생활만족도($\beta=.285$), 토론선호도($\beta=.155$)가 학습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0.659$, $p<.001$), 학습만족에 대한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37.6%이었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2단계에서는 심리자본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심리자본($\beta=.522$), 주관적 학교성적($\beta=.311$) 및 대학생활만족도($\beta=.191$)가 학습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7.651$, $p=.004$). 학습만족에 대한 변수들의 설명력은 57.4%이었으며 심리자본 투입으로 인한 학습만족에 대한 설명력은 19.8%가 증가되었다.

Table 3.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rning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4)

Characteristics	Division	Psychological capital			Learning satisfaction		
		M(SD)*		t or F(p) Tukey or Dunnett	M(SD)*		t or F(p) Tukey or Dunnett
Sex	Male	3.70(.50)	62.94(8.46)	0.59(.557)	3.52(.57)	24.64(4.01)	-0.07(.942)
	Female	3.66(.44)	62.17(7.42)		3.53(.63)	24.69(4.45)	
Motive of admission	to match Grade ^a	3.33(.50)	56.64(8.55)	7.01(.001) b>a,c	3.27(.57)	22.91(3.97)	2.41(.093)
	to fit Aptitude ^b	3.78(.42)	64.30(7.21)		3.63(.63)	25.34(4.43)	
	consider Job opportunity ^c	3.59(.45)	61.10(7.59)		3.46(.59)	24.18(4.12)	
School life satisfaction	Low ^a	3.65(.47)	62.11(8.02)	10.70(<.001) c>b	3.48(.74)	24.33(5.15)	20.04(<.001) c>b
	Medium ^b	3.58(.39)	60.90(6.63)		3.37(.47)	23.59(3.13)	
	High ^c	3.96(.53)	67.27(9.05)		4.03(.72)	28.22(5.07)	
School grades	Low ^a	3.56(.46)	60.57(7.78)	6.23(.002) c>a,b	3.25(.55)	22.77(3.84)	30.40(<.001) c>a,b
	Medium ^b	3.66(.44)	62.15(7.43)		3.49(.52)	24.37(3.65)	
	High ^c	4.04(.43)	68.60(7.38)		4.50(.53)	31.47(3.68)	
Prefer discussion	Low ^a	3.43(.35)	58.27(6.00)	21.40(<.001) b,c>a	3.27(.49)	22.88(3.42)	12.25(<.001) b,c>a
	Medium ^b	3.81(.44)	64.78(7.53)		3.67(.63)	25.65(3.46)	
	High ^c	3.98(.43)	67.69(7.29)		3.89(.60)	27.25(4.19)	
Personality type	Introverted ^a	3.41(.40)	57.90(6.75)	19.86(<.001) c>a,b b>a	3.34(.59)	23.36(4.13)	6.08(.003) c>a
	Middle ^b	3.72(.44)	63.19(7.42)		3.54(.58)	24.74(4.10)	
	Extrovert ^c	3.99(.35)	67.86(5.87)		3.82(.64)	26.76(4.49)	

*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5. Factors affecting on learning satisfaction

(N=164)

	Model 1					Model 2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22.669	.414		54.761	.000	5.766	1.987		2.901	.004	
Motive of admission(Aptitude)	.703	.548	.082	1.284	.201	-.271	.466	-.032	-.582	.562	
School life satisfaction(High)	2.929	.714	.285	4.102	.000	1.961	.600	.191	3.265	.001	
School grades(High)	5.902	.972	.396	6.070	.000	4.635	.817	.311	5.677	.000	
Prefer discussion(High)	2.243	.914	.155	2.454	.015	.724	.775	.050	.934	.352	
Personality type(Extrovert)	1.339	.738	.119	1.815	.071	-.150	.633	-.013	-.237	.813	
Psychological capital						.291	.034	.522	8.634	.000	
adj R^2	.376					.574					Δ adj R^2 =.198
F	20.659					37.651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심리자본과 학습만족 정도 및 심리자본이 학습만족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학습만족은 5점 만점에 3.53 ± 0.61 점이었는데, 이는 4년제 일반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박지윤(2017)이 제시한 결과인 3.40 ± 0.79 와 유사한 결과로 중간 정도를 약간 웃도는 만족도로 볼 수 있고, 본 연구와는 다른 5점 척도의 도구를 사용한 이종연 등(2013)의 연구결과인 3.76 ± 0.83 점 보다는 낮은 결과였다[2,5].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학습과정 후 학습의 품질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만족은 학업성취의 예측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4]. 학습만족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한 연구가 흔치 않았으므로 경우에 따라 다른 도구를 사용한 연구와 비교하였으므로 정확한 학습만족 측정에 한계가 있고, 학습만족은 교육과정, 교수자 강의의 질 등의 학습제도나 학습관련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연구를 통하여 학습만족 관련 변수를 조사하여 학습만족을 높이기 위한 중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심리자본을 조사한 다수의 연구들에서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지만 모든 도구가 심리자본의 하위영역인 자신감, 희망, 낙관성 및 복원력의 개념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측정도구의 척도점수에는 차이가 있어, 본 연구와 비교 시 5점 척도로 환산하여 비교하였고 표준편차의 경우 수학적 문제 대두되므로 표준편차를 참고로 점수의 범위를 산정하여 비교한 점, 일부 연구의 결과에서 표준편차를 제시하지 않아 결과비교에 무리가 있었던 점과, 본 논의에서는 심리자본 전체점수의 비교와 심리자본의 하위영역 중 두드러진 영역만을 비교한 측면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심리자본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67 ± 0.46 점이었는데, 이는 같은 도구로 4년제 일반대학생의 심리자본을 측정한 박지윤(2017)의 결과나, J. Hao 등(2015)의 중국의 여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직장과 가정에서의 갈등을 연구한 결과에서의 심리자본 점수와 유사한 결과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가 이소영 등(2018)이나 정은 등(2018)

의 다른 도구를 사용한 간호학과 1, 3, 4학년 대상의 연구결과, 간호대학생 대상의 심리자본인 3.42 ± 0.43 보다는 높은 점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에서 심리자본 평균이 유사한 점수분포를 보였다[2,13-15]. 이는 인위적 조작이 되지 않은 자연적인 집단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심리자본의 평균점수이므로 편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리자본은 개인의 긍정적인 인지가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이나 인간관계 및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삶의 매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정서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속성들로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개발이 가능하다[1,2,13]. 따라서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심리자본을 증진시킴으로써 간호학 교육과정 중 수행해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 및 다양한 의료요원들과의 인간관계는 물론 발생 가능한 예기치 않은 임상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심리자본의 하위영역인 자신감, 희망, 낙관성 및 복원력의 평균은 각각 3.68 ± 0.50 , 3.90 ± 0.52 , 3.50 ± 0.64 및 3.50 ± 0.60 점으로 희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류다현(2015)의 자연계열 대학생 대상의 연구나 J. Hao 등(2015)의 일반 주민 대상의 연구에서 심리자본 중 희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결과와 같은 결과였다[6,14]. 희망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지력을 동원하고 대안을 찾아 나아가는 마음으로, 본 연구 대상자인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심리자본 중 희망이 높은 것은 입학 직후부터 직면하는 학업에 대한 부담이나 부적응 요인을 해결해나가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7]. 본 연구에서 자신감이 희망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소영 등(2018)의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나 J. Hao 등(2015)의 간호사 대상의 연구에서 자신감이 가장 높았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3,14]. 또한 김유미(2016)의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낙관성이 가장 높았다는 결과가 있어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통해 대상자에 따른 심리자본의 하위영역별 차이를 확인하고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집단별로 심리자본 중재프로그램의 개발하여 적용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학과 신입생의 복원력 점수는 높지 않은 심리자본 점수 중에서도 하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소영 등(2018)이나 정은 등

(2018)의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결과들과 같은 것으로 [11,13,15] 간호학과에 입학 후 학교생활과 과중한 학업 이수를 위한 과정에서 문제에 직면 시 문제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문제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복원력 강화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마련 및 주기적인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학과 신입생 대상의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학습만족과 심리자본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W. Q. Dai. (2014)의 일반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학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였고, 심리자본의 경우에도 남학생의 심리자본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는 이소영 등(2018)의 연구결과와도 차이가 있었는데[13,16], 이는 특정 학과의 신입생과 일반대학생에 있어 기본 성향이나 가치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간호학과 입학동기에 따른 학습만족의 차이 비교에서 적성에 맞추어 입학한 대상자의 학습만족 평균점수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유사한 연구가 없어 결과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간호학과 신입생의 경우 이수하게 되는 교양과목은 거의 유사하지만, 전공기초학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재학 시 계열이나 과목과목 이수에 따라 학습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17,18]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습만족의 입학동기에 따른 차이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입학동기에 따른 심리자본의 차이 비교에서 적성에 맞추어 입학한 경우가 취업을 고려한 경우나, 성적에 맞추어 입학한 경우보다 심리자본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호학과 입학동기별로 심리자본을 조사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 심리자본은 개발이 가능한 상태로 본 연구에서 심리자본을 조사한 시점이 간호학과 입학 후 한 학기를 마치고 2학기를 시작하는 시점이었는데, 이는 적성에 따라 입학한 학생들의 학과 적응이 높았다는 정인숙(2017)의 결과와 유사하지만[19], 입학동기에 따른 심리자본의 차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은 대상자의 학습만족과 심리자본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대학 내의 다양

한 인적자원들과의 관계나 학생이 속한 학업이나 생활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평가의 충족정도이다[13,20]. 대학생활만족도와 학습만족이나 심리자본에 대한 관계를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없으나 이소영 등(2018)의 가족이나 부모의 경제적 지원, 사회적 지지 및 교우관계의 정도에 따라 심리자본에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결과에서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적 지지 및 교우관계 등의 변수들이 대학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그에 따라 심리자본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어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삶의 질과 심리자본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김영경 등(2018)의 연구결과와도 관련이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9,13]. 이와 같이 높은 대학생활만족도는 학습만족과 심리자본을 증가시키는데 반해, 대학생활만족도가 낮을 경우 학업중단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므로[20] 대학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도 입학 직후부터 학부모 학생 및 교수자들의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대학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학교성적이 높은 학생들의 학습만족과 심리자본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 Q. Dai. (2014)의 적극적인 학습자들의 학습만족도가 높았다는 결과나 학업성적에 따라 심리자본에 차이가 있었다는 이소영 등(2018)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13,16]. 주관적 학교성적은 심리자본 중 자신감과 연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1] 개인의 성적향상으로 긍정적이면서 동기부여가 가능한 다양한 심적자원의 통합개념인 심리자본이 증가된 결과로 추론할 수 있다.

심리자본은 주도성, 사회성 및 수용성의 개념을 내포하는데[1] 이 중 주도성이나 사회성은 토론선호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 본 연구에서 토론선호도에 따른 학습만족과 심리자본을 조사하였는데, 토론선호도가 높거나 보통인 대상자의 학습만족과 심리자본이 토론선호도가 낮은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입장에서 교육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준비하기 위해 간호학과 입학직후부터 문제중심학습, 팀학습 등의 다양한 학습법들이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활용되고 있고 각 수업과정에서 토론법을 적용함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성격유형에서는 외향적인 대상자의 학습만족이 내향적인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외향적인 대상자가 중간정도인 대상자와 내성적인 대상자보다 심리자본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과 학습만족을 조사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 없지만, 외향적인 대상자일수록 심리자본 중 자신이 처한 상황 중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양면을 모두 직시하지만 부정적인 요소에 가려진 긍정적인 면을 발전시켜 나가는 경향을 소유하므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심리자본은 일부 간호사들의 경우 우울을 경감시키는 긍정적인 자원이었다는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어[8,14] 간호학과 교수자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만족과 심리자본에 관심을 갖고 교육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심리자본과 학습만족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자본과 학습만족의 직접적인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없지만 심리자본과 학업성취도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정은 등(20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학습만족이 학업성취에 유의한 예측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2,15].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은 대상자의 학습만족과 심리자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삶의 질이 심리자본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김영경 등(2018)의 결과에서 규명된 삶의 질이[9] 본 연구의 대학생활만족도와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삶의 질을 조절변수로 투입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간호학과 신입생의 심리자본이 학습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생활만족도($\beta=.191$), 주관적 학교성적($\beta=.311$) 및 심리자본($\beta=.522$)이 학습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습만족에 대한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57.4% 이었고, 학습만족에 대한 심리자본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자본이 학습만족의 유의한 예측요인이었다는 박지윤(20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였고, 학습자의 학습지향성에 심리자본이 핵심요인의 역할을 한다는 류다현(2015)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2,6]. 또한 자연계열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에서 심리자본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학습과제를 주도적으로 해 나갈 뿐 아니라 학습과정 중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이종연 등(2013)의 연구결과나 자신감은 학습만족에 대한 유

의한 영향요인이었다는 박지윤(2017)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5,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토론선호도, 대학생활만족도, 주관적 학교 성적 및 심리자본이 학습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심리자본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내에 전문간호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교과목을 이수해야 할 간호학과 신입생의 성공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필수적인 학습만족을 높이기 위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심리자본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과 그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심리자본이 학습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간호학과 신입생의 간호교육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학과 신입생의 심리자본과 학습만족은 중간 정도 이상의 수준이었고 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희망’점수가 가장 높았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간호학과 입학동기, 주관적 학교성적, 토론선호도, 성격유형 및 대학생활만족도에 따라 심리자본과 학습만족에 차이가 있었다. 심리자본과 학습만족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에서 학습만족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는 심리자본, 주관적 학교 성적 및 대학생활만족도이었고 이 중 심리자본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습만족 향상 프로그램 개발 시 이들 영향요인을 반영하여 학습만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학과 적응과 나아가 간호전문인 양성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사료된다. 단, 본 연구의 대상이 일개 대학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는 입학 직후부터 과중한 학업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습만족을 높이기 위한 심리자본과 관련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간호교육과정에서의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심리자본을 독립변수로 조사하였으나,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습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규명하는 연구 및 학습만족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적용 전후 심리자본의 변화를 보는 추후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J. H. Kim. (2017).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nhancement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 [2] J. Y. Park. (2017) *Prediction of Students' Self-leadership on Learning Satisfact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rning Flow*.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3] Y. M. Baek. (2018). *Last year 'SKY' 1238 college students out of the middle ... the largest in five years*. Newsis(Online).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21_0000258544&cID=10201&pID=10200
- [4] J. C. Lee. (2014).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Adult Learner amo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directed Learning, Major Commitment, and Happiness: Focusing on University Students. *Andragogy Today :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7(4), 85-113. <http://www.riss.kr/link?id=A105594424>
- [5] J. Y. Lee & J. R. Kim. (2013). Analysis on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Learners' Perceived Usefulness, Learner Satisfaction and Related Factors in Mobile Learning in Universities. *Journal of Korean Education*, 40(1), 49-79. <http://www.kedi.re.kr>
- [6] D. H. Ryo. (2015). *Investigat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sychological Capital, Creative Personality, Learning Orientation, and Perceived Inovative Behavior*.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7] J. B. Avey, F. Luthans, R. M. Smith & N. F. Palme. (2010). Impa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employee well-being over time.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5(1), 17-28. DOI : 10.1037/a0016998.
- [8] H. S. Yoo. (2004). *Empirical Study on Women's Human, Social and Psychological Capital : Focusing on Daejeon City*. Doctoral dissertation. Daejeon University, Daejeon.
- [9] Y. K. Kim, S. H. Kweon & H. K. Son. (2018). The Influence of Perceived Stress, Depression,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Quality of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3), 1579-1593. <http://www.riss.kr/link?id=A105429725>
- [10] J. S. Kim. (2013).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on Employment-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6(4), 31-59. UCI : G704-000695.2013.16.4.001
- [11] Y. M. Kim. (2016).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Emotional Intellig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7), 112-122. DOI : 10.5762/KAIS.2016.17.7.112
- [12] S. B. Choi. (2012). The Relationship among Self-Leadership, Creative Personality and Innovative Behaviour and Study Satisfaction.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31(4), 611-638.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1209>
- [13] S. Y. Lee & K. H. Lee. (2018). Convergence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positive psychology capital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5), 269-279. DOI : 10.15207/JKCS.2018.9.5.269
- [14] J. Hao, D. Wu, L. Liu, X. Li & H. Wu. (2015). Association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hinese Female Nurses: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Role of Psychological Capital.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2:12(6), 6682-6699. DOI : 10.3390/ijerph120606682.
- [15] E. Jeong & M. R. Jung. (2018).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 on Gri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9), 309-317. DOI : 10.14400/JDC.2018.16.9.309
- [16] W. Q. Dai. (2014).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behavioral style, learning strategy and satisfaction*. Master' thesis. Chung 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17] I. S. Jung. (2016). The Converging Effects of Complete Science Subjects in High School on the Grades of Basic Nursing Sciences and Major Nursing Subjects of Nursing Students of one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5), 97-106. <http://www.earticle.net/Article/A288912>
- [18] I. S. Jung. (2017). Convergence Research on the Studying Science Subjects before Entrance to Nursing department, the Scores of Basic Nursing Sciences and Academic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9), 117-125.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108>
- [19] I. S. Jung. (2017). Convergence Study on the Drug Dose

Calculations and 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4), 45-51.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7600>

[20] D. W. Han & M. C. Kang. (2016). Investigating Factors Influencing University Students' Intention to Dropout based on Education Satisfa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11), 63-71.

DOI : 10.5392/JKCA.2016.16.11.063

정 인 숙(In-Sook Jung)

[정회원]



- 1988년 3월 : Graduate School of AUP(Master of Science in Nursing)
- 2004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현재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간호, 기초간호과학, 간호교육방법
- E-Mail : irisleejung@naver.com